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3M

예레미야 1:4-10

심주환 선교사님

“고마우신 하나님, 제1회 선교축제로 참사랑교회가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몇 해 전,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품고 기도했던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올 한해를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중의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이 각 심령 속에 들어가 살아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イエスはキリスト, 私は神の子供, すべての問題は終わり. (이예스와 키리스토, 와타시와 카미노코, 스페테노 몬다이와 오와리.)” 지난번에 가르쳐드렸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다. (웃음) 한국어로 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그 고백대로 될 줄 믿는다. 한국에 1년에 한두 번 나오게 되는데, 부모님 계산 곳으로 찾아간다. 일본을 가고 한두 해 되었을 때에는, 부모님을 어디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할까, 어디에서 기쁘게 해 드릴까 고민했었다. 일부러 식당 예약을 해서 가기도 하고, 어디로 끌고 가고 그랬었다. 하나도 안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깨달았다. ‘부모님이 해 주시는 밥을 맛있게 먹자.’ 그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다. 지난 12월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한국에 다녀갔는데, 그때 마침 하루 종일 시간이 되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뭐가 준비하고 싶다고 하셔서, 장날을 맞이한 김에 하남 덕풍시장에 나갔다.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엄마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갔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것저것 고르시더라. 돈을 내려고 했는데 어느샌가 이미 어머니가 지불을 다 마치고 있었다. 한참 시장을 다니다가 돌아오기 직전이었다. “주환아, 너 떡볶이 좋아하잖아. 떡볶이 먹을까?” “아이고, 곧 들어가서 식사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빨리 들어가죠.” “아니야, 떡볶이 먹어. 싸가지고 가자.” “그러면 조금만 싸 갑시다.” 해서 가지고 갔다.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시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행시킨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 한 마디로 하면 선교다. 여기에 여러분이 동행하고 마음만 맞추면 끝나는 것이다.

2년 만에 강단에 서게 되니까, 1시간 이상의 분량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웃음) 간단히 마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선교 속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올해 참사랑 강단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가 방향 맞추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보여 주셨다. 요한복음 3:16에, 이 세상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해서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멸망받지 말고,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4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원단에 참사랑 강단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내가 기뻐하는 일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40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모든 만민이. 그것이 곧 선교인 것이다.

본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3M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막내아들이 한 20개월 쯤 됐을 때다. 주일에 식사를 마치고 갔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났다. 계단 위에서 넘어져서 떨어졌다. 마지막 모습 머리와 엉덩이가 거꾸로 되어서 땅에 박혀 있는 것이었다. 보니까 눈썹 위가 이만큼 찢어져서 피가 줄줄 나는 것이다. 주일이나 병원도 문을 다 닫았고, 부랴부랴 응급실이 있는 데로 갔는데 아니어서, 두 시간이 걸려서 비로소 응급실을 찾아갔다. 의사선생님에게 보여주는 순간, 젊은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하면서, “3M” 3cm쯤 찢어졌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의사가 와서 3M 보조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세 번 붙이더라. (웃음) 그게 끝이었다. 자세히 보고 흉터가 남지 않도록 제대로 약을 바르고 치료나 해 주든지 해야지,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옆의 의사 불러서 대충 테이프 붙이고 끝인 것이다. ‘다시는 오나 봐라.’ 했다. 그런데 좀 지났다. 그 상처가 다 아물더니, 1년이 좀 지나 보니까 흉터만 조금 있고, 아무 이상 없이 붙어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적용하게 되었다. 우리 인생도 3M으로 끝내야 되겠구나. (웃음)

1. 메시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메시지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지 않나?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한다.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말씀 받기 전에 일하려고 하면 실패한다. 간만큼 다시 돌아와야 한다. 선교팀들이 찬양했는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운다고 했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만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것이다.

(1)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2절, 4절, 9절에 계속 나온다.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 구약성경에 대소선지서가 있는데, 처음 장면을 보면 대부분 “여호와와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한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메시지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란다.

(2) 바울에게도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셨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셨다. “주여, 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을 받으시기 바란다.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체험, 갈보리산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내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8:5의 말씀이 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한다. 열심히 말씀을 노트에 적는 이유가 말씀 붙잡으려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정확한 것이 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붙잡혀 버려야 한다. 오늘 오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말씀이 다 새나가고 있었다.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으시기 바란다.

2. 미션

두 번째 M은 무엇인가? 미션이다. 말씀을 받아야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생기게 된다.

(1)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해야 할 일을 주셨다. 예레미야 1:5를 보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셨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7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10절도 보자.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

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이 임한 후에 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도 받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보다 하고 열심을 내본들 후회하게 되어 있다.

(2)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을 디메섹에서 부르시고 나서도 그에게 할 사명을 주신다. 사도행전 22장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변명하면서 하는 말씀 중에도 바울은 이야기한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바울이 한 질문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말씀이 임했을 때, 내 사명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그 말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9:15에, “이 사람은 여러 나라와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말씀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진다.

제작년에 여기에서 고백했다. 나는 16세에 전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구원받은 순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동시에 주어졌다. calling과 함께 mission이 주어진 것이다. 그게 세계선교였었고, 그것이 2011년에 성취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일본 땅으로 보내셨던 것이다. 내가 내 뜻대로 ‘무조건 가겠습니다’ 했으면, 아마 많은 후회를 하고 벌써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말씀의 흐름을 따라 언약 붙잡고 갔더니, 해야 할 일도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까지도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다. 일본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희망이 없다. 완전히 황폐되고 무너져야만 한다. 0.3%의 기독교 인구다. 가톨릭 합쳐서 그렇다. 올해는 1% 복음화하자 부르짖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다. 이 0.3%도 없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이것까지도 다 황폐해져야, 그래서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것 같다. 그 후에 우리 같은 남은 자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뒤집으실 것 같다.

3. 마인드

세 번째 M은 무엇이겠는가? Mind다. 이것은 개인적인 간증이다. 다음 달이면 만 7년이 되고, 8년 차 사역이 된다. 처음 3년까지는 내 열심을 가지고 일본을 뒤집겠다고 돌아다녔다. 되는 것은 없고 성도 수는 그대로였다. 왔다가 그대로 돌아왔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다. ‘선교는 연륜으로,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네 마음이 거기에 정해져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었다. 그 뒤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현장에 대해 주신 그 마음을 늘 그대로 품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1)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다.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 후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 “애들아,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다른 선지자들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왜 멸망한다고 하느냐.” 해서, 친바벨론파,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애 통한 심정으로 계속 기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 예레미야 4:19에 가면, 하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에 일어날 일을 꼭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들은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워서 고백한 내용이 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라.”

(2) 내가 일본에 갔다가 처음 강단에 섰을 때, 2011년 8월이었는데,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전했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선포하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섯 번이나 움직이면서 기도했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마음이 내 마음이었다. 2011년 도호쿠대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로 온 마을이 다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타다. 빨리 일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심정 뿐이었다. 그리고 막상 갔는데 3년 뒤에 우리 동네에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나고, 수십 명이 죽고, 수백 채의 가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역적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더 깨어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났다. 구마모토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는 아브라함같은 마음밖에 없었다. ‘하나님, 의인 열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히로시마에, 일본 땅에 의인이 있잖아요.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런 애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가지게 하시려고 있다.

(3)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 촌을 두루 다니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해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애통해 하셨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말씀도 주어졌다.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들으셨다. 보고 들으면서,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으셨지 않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가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지 않나. 뜻 있는 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선교현장에 가시기도 하지 않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애절한 소원,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

(4)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도, 아테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했다. ‘이 쾌쩍한 놈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저주,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다.

결국 이 세 가지, 말씀, 사명,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아닌가 생각한다.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줄였다. 2차, 3차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히로시마로 오시기 바란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겠다. 올해 선교대회 주제를 통해서도 보지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는가? 진짜 마지막 때구나.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 끝은 언제인가? 이 찬양의 마지막 후렴에 고백하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거기에 드리면 된다.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내가 있게 하고, 가정과 산업과 교회와 후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허송세월하게 된다. 허송세월이 다른 게 아니다. 신명기 1장을 보니까, 호렙산을 출발해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는 열하루 길이었다고 했다. 11일이면 갈 수 있다. 그 길을 40년 걸려서 갔다. 허송세월이다. 깨닫지 못하면 돌고 도는 인생이 된다. 후대에 가서도 그렇다. 선교현장에서 고백했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후대가 주인공이구나.” 이 아이들이 진짜 주인공이고 주역들이구나. 후대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응답받으려면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속에 올-인 하시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과 소식들을 들을 때, 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전도, 선교에 대한 뜨거운 한이 더욱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까지 주어졌기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마음에 담고, 우리와 우리 후대가 선교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제1회 선교축제를 통해, 다시금 100명 이상의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시고,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